중환자 간호식 기도

(눅6:12~19)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중환자 간호식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중환자를 간호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라는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가 중환자를 간호하는 식으로 하는 기도가 되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말은 이런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중환자를 간호하는 식의 기도가 있어야 ‘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가 제자들 중에서 열두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를 쓸 때에 실제 포인트는 열두 사도를 선택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부터 누가가 사용한 단어에 입각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바로 '중환자 간호식 기도'라는 얘기에요.
임의로 그냥 비유적으로 창안한 그런 기도의 명칭이 아니라, 12절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제목입니다.

자, 이 기도의 이야기를 왜 지금 누가가 여기서 하게 될까요?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는 이 이야기가 마태에도 마가에도 있는데, 맥락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는 독특한 자기만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6장 앞에서 두 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첫 번째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의 keyword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라이브 만남',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고백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학자들처럼 장기 알 옮겨놓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라이브 만남이 안식의 내용이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의 논조의 keyword는 그렇게 만나진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냥 마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계셔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몸을 이용하셔서 이루고 싶은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이 내 손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전달되면서 내 손이 움직이게 될 때, 그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손을 대는 것이 돼버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른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손을 뻗으라고 하실 때에 손이 마른 자는 손

을 내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른 손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이 내밀어질 수 있었고 손을 스트레칭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행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 의미는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라이브의 만남을 이룬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에 있다.
'안식은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싸잡아 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뿐으로 전달되어진 안식일의 내용을 이제부터 주님께서 실천에 옮기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라이브 만남을 이룰 것이고, 라이브 만남을 이룬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뻗어 나오는 기운에 의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이 진행될 것인가?'
참 안식의 내용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시는 전형적이 모범의 예를 주님께서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번만 쓰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의사인 누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 한번 사용된 단어가 뭐냐 하면 '밤이 새도록'이에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 니쿠테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 니쿠테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의사 출신인 누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가 하면, 환자를 간호하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서 해가 뜨게 되는 상황을 이 '디아 니쿠테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아 니쿠테리오'라고 말을 하면 '내가 환자를 간호하느라고 한잠도 못 잔 채 지금 동이 트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얘깁니다.
그 단어를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에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환자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심장의 박동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배를 수술했는데 내장이 너무 부풀어 올라서 봉합을 못하고 배를 열어놓은 채로 거즈 같은 것으로 열린 배에 넣어두고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부은 내장이 가라앉은 다음에 봉합을 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환자들 중에는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악화증세가 보이면 촌음을 다투어서 care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중환자실에 사람이 머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중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느라고 밤을 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라이브로 만나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상태가 불안정한 그런 위급한 중환자이신 것처럼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care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고정시키느라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라이브로 만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위급한 중환자를 밤새도록 지켜보며 간호하듯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이루어져 가지만,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늘 이렇게 하고 살아요.
열대야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지만, 열대야가 아니라 선선한 가을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에 환하게 불이 밝혀 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잡이 배가 불을 밝히듯이 마음이 밤인데도 환하게 밝히면서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제 애인에게서 온 헤어지자는 이야기, 이런 얘기나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철야기도 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를 뿐이지 정말 중환자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위급한 사업문제, 암 선고받은 건강문제,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마음이 주시하면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다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유독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문제, 자식문제, 애인문제, 결혼문제, 노후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밤이 새도록 눈을 밝히며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유독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밤을 새면서 중환자를 바라보듯이 보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밤새도록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자를 지키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말고는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고, 만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잠잘 시간에 이렇게 중환자를 간호하듯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누가가 쓰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잠자는 필수적인 휴식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중환자를 지키듯이 지켰다는 것이 또한 안식의 내용이 될 수 있는 휴식이라는 얘깁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이냐?
수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영면에 들어가셨다'
영면이란 영원한 잠을 말합니다.
죽음과 잠이 같이 돌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에.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신 잠이란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기도문 할 때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미결의 일이 많아요.
해결되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일을 등지고 죽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듯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중환자를 돌보듯이 마음에 온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면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기도하시고' 다음에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던 주님께서 하나님과 라이브의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주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역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구제문제로 일이 복잡하게 되었을 때 집사를 뽑자고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본업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인데, 그 사도들이 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는 소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밤새도록 중환자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뒤에 사도들을 뽑았다는 얘기는 중환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설 자들을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쪽 행정실의 직원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리고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중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예의주시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자들을 뽑은 것이 바로 사도들이라는 얘깁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사도들뿐입니까?

사도들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서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안디옥에서 생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환자를 대하듯이 마음의 온 신경과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 누가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밤새 중환자실에서 간호하듯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밝자마자 제자들 중에서 사도 열둘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밤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자들로 뽑으셨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환자를 바라보듯 한 집중된 시선으로 하나님과 라이브만남을 이룰 자들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자들인 것을 누가는 지금 통찰하고 이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못 서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돌려놓고 모든 마음의 관심과 시선을 중환자를 바라보는 간병인의 시선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얘깁니다.
왜? 가룟유다는 나라의 독립을 봐야 되고, 경제문제를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아요.
중환자를 바라보듯 하는 몰입된 시선으로 봐야 될 게 가룟유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는 이 땅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치워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판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새 철야기도 하는데, 그 철야기도 하는 동안 마음의 시선이 온통 돈 문제에 다 가있다, 건강 문제에 다 가있다, 그래서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중환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 문제요, 나라 문제요, 사업문제, 건강문제, 자식 문제이다.
이게 바로 가룟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보게 돼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십자가에서 죽은 자리.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위급하게 느꼈던 내 가정에 대해 죽는 자리이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꼈던 직장의 승진문제에 대해서 죽는 자리이고,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애

인과의 결혼문제에 대해 죽는 자리이고,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 노후대책 문제에 대해 죽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고, 오직 내 시선이 살아있는 대상은 중환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를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고, 그래야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온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니…' 왜 그렇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니까.
예수님 자신만으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라이브로 만나기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기어코 마음에 가득히 하나님아버지를 모셔 들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아버지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손을 대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자는 얘깁니다.
하나님과 라이브로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이 발산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발산하고 하나님의 힘이 발산되면서, 내 가정 안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이 나로부터 나오게 돼서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꼭 바다 위를 걷고, 위암 말기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routine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routine한 일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꼭 그렇게 센세이셔널 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우린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면 불치병도 나을 수 있고, 앉은뱅이도 일어설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평생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밥 짓고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중환자 간호식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적 기도를 통해서만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라이브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 간호식 기도, 밤이 새도록 했다는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뻗어내는 기운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라이브만남을 이루게 해 주시며, 그 만남을 위하여 중환자 간호식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나 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을 향하여 기운이 뻗어 나와서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